

【어디에도(nowhere)】

장르 및 러닝타임

드라마, 12분

로그라인

길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식은 구청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는다.

주제

정착할 곳 하나 없이 포기하는 것들만 늘어가는 청년의 모습을 담는다.

캐릭터

박형식(31세/남) :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남자.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후 현실은 몇 년째 길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다.

안종서(37세/남) : 형식과 같이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 밝고 호탕한 성격. 유학파인 형식과 달리 종서는 문화센터에서 3개월 간 캐리커처 수업을 들은 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삐에로와 인플루언서

용역 그리고 학생

시놉시스

한적한 골목에 작은 캐리커처 천막이 있다. 그 안에서 추운듯 한껏 웅크리고 있는 형식. 근처에서 풍선을 팔던 삐에로가 화장실에 간다며 형식에게 풍선을 맡긴다. 천막 안은 풍

선으로 가득해진다. 곧이어 종서가 찾아온다. 종서는 형식처럼 천막에서 캐리커처를 그려 주는 일을 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형식과 종서는 천막 바로 옆에 나가 담배를 피운다. 그 순간 형식이 홍보를 위해 의뢰를 한 인플루언서가 찾아온다.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수가 늘었으니 기존에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 금액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형식은 홍보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의기소침해진 형식은 종서와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눈다. 그 와중에 형식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로 천막 철거 요청을 받는다. 형식은 전화를 받다가 이내 신경질적으로 끊는다. 천막 바깥으로 사람이 서있다. 형식은 손님인 줄 착각하지만 철거를 하러 온 용역이다. 천막이 무너지고 천막 안의 풍선들은 하늘 위로 흩뿌려진다.

시나리오

S#1 길목/오후

쌀쌀한 겨울, 거리에서 알록달록한 수많은 풍선을 들고 빼에로가 서있다. 목에는 팻말이 걸려있다. 팻말에는 '1개 1,000원' 이라는 문구가 써있다.

[타이틀이 나온다.]

어디에도

가만히 서 있는 빼에로. 갑자기 사타구니를 붙잡고는 초조한 행동과 표정을 짓는다.

빼에로 : 어우.. 큰일났다. (안절부절할 모습) 못참아.

풍선을 들고 어디론가 향한다.

S#2 천막/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 오렌지 색상의 작고 낮은 천막. 캔버스 스탠드와 몇 가지의 도구 그리고 의자가 놓여있다. 추운듯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형식. 갑자기 눈 앞에 뽀에로가 나타나 깜짝 놀란다.

뽀에로 :아저씨!

형식 : 아 씨 깜짝이야.

뽀에로 :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풍선좀 잠깐 맡길게요.

형식 : 아니... 제가 허락도 안했는데.

뽀에로 : 긴급상황이에요. 긴급상황. 큰거. 큰거.

뽀에로는 천막 안으로 풍선을 한움큼씩 잡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 좁은 천막은 어느새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 찬다.

뽀에로 : 아저씨, 감사해요!

형식 : 하... 참.

풍선 더미에 둘러싸인 형식.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짓지만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다.

곧이어 천막 안으로 종서가 들어온다.

종서 : (천장의 풍선들을 바라보며) 우와.. 뭐야 이걸.

형식 : 형. 어쩐 일이에요?

종서 : 알록달록하고 좋다 야. 축제? 마셔라. 커피 사왔다.

형식에게 커피를 건넨다.

종서 : 날씨가 이래 추운데 난로 하나 안놓나? 손님이 추위가 문앉아있겠다.

형식 : 난로는 없지만 손난로는 있죠. 하나 떼드려요?

종서가 있는 방향으로 패딩을 활짝 여는 형식. 패딩 안쪽에는 부착형 손난로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그런 형식의 모습을 보고 종서가 호탕하게 웃는다.

종서 : (호탕하게 웃으며) 뭐고. 됐다 마. 담배나 하나 피자.

S#3 골목길/오후

형식 : 어쩐일로 왔어요. 형 저기 그 남산타워 밑으로 갔다면서요.

종서 : 날도 춥고 하도 텃세가 심해가 요즘은 그냥 집에서 그린다. 크몽, 당근 요런데다 캐리커쳐 그려준다고 올리니까 간간이 오긴 오더라.

종서의 핸드폰에서 당근 알람이 울린다.

종서 : 잠깐만. 나 채팅 조금만 할게.

천막 앞으로 다가오는 한 여자.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형식 : (급히 담뱃불을 끄며)어서오세요!

인플루언서 :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신다고.

형식 : 아! 몇주 전에 연락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오늘 다섯시에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두시밖에 안됐는데...

인플루언서 :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형식 : 다행히 지금 손님이 없어서 바로 그러드릴게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언서 : 네. 근데 원래 10만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형식 : (멈칫한다)네. 그렇죠?

인플루언서 : 그때는 제가 팔로워가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좀 늘었어요. 만명. 금액을 조금 올려주셔야할 것 같은데.

형식 :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요! 그럼 더 드려야죠.

인플루언서 : 팔로워가 만명이면 보통 50만원 정도는 받거든요.

형식 : 예?

인플루언서 : (손가락을 짝 피며) 50만원.

형식 : 어.. 그렇게는 안될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 그럼 제가 특별히 40만원에 해드릴게요.

형식 : 아니. 처음에 1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인플루언서 : 팔로워 1만 되는 인플루언서 한번 찾아봐요. 40만원에 해주는 사람 있나.

형식 : 죄송해요. 저 그냥 안할게요.

인플루언서 : 여기까지 왔는데요?

형식 : 예 그럼 죄송하지만 안녕히 가세요.

인플루언서 :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는데 교통비라도 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점점 언성

이 높아진다)완전 엉망이네 이거! SNS에 여기 절대 가지말라고 할까봐.

형식 : (한숨을 쉰다.)

형식은 말없이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다가 지갑을 꺼내어 만원짜리 두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형식 : 자, 여기요.

인플루언서는 형식의 손에 든 현금을 낚아채듯 가져간다. 형식과 종서는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열린 천막 사이로 풍선이 몇 개 새어 날아간다.

종서 : 또라이 아이가 저거.

S#4 천막 안/오후

종서 : 점마 뭐고?

형식 : 홍보하면 손님좀 올까 해서... 요즘 그런거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숨을 쉬는 형식.

종서 : 인플루언서는 무슨. 거지 아이가.

형식 : 저같은 사람이 거지죠.

종서 : 됐다 마. 마음 쓰지 마라. 액땀했다 해. 내가 만원 보태줄게. 그건 그렇고, 형식아 요즘에는 무슨 깨끗한 거리 만든다고 안하나. 쓰레기고 뭐고 사람까지 싹 다 치울라하더

만. 단속 안나오더나?

형식 : 맨날 나와요. 여기... 예술가들 지원한다고 자리 줄 땐 언제고...

산만한 종서의 모습. 풍선을 이리저리 만지다가 하나를 터트린다. 형식 놀란다.

종서 : (멋쩍게 웃으며) 앗, 미안.

형식 : (한숨을 쉰다.)

종서 : 너는 유학도 다녀왔다 안카나. 왜 여서 맨날 캐리커처나 그리고 있노. 나야 뭐.. 문화센터에서 배운 걸로 이정도 풀칠이면 만족한다.

S#5 전시회장/회상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있다. 한 가운데에 홀로 서있는 형식. 주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작가들의 그림에 하나 둘 판매 스티커가 붙는다.

형식(N) : 프랑스에서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공동 전시를 할 때였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친구들과 달리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그림에는 하나 둘 스티커가 붙었고 내게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그 어느 것도 붙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부모님 전세금까지 빌려 유학을 온 나와 그들의 여유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나는 온 힘을 다해 풍선을 불었을 뿐인데 바람은 점점 빠지고 있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그림을 싣지 못해 몸만 겨우 돌아왔다.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S#6 천막 안/오후

형식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소리가 울린다. 형식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휴대전화를 꺼내든다.

형식 : 여보세요.

공무원 : 예 종로구청입니다. 철거 됐나요? 저희가 오늘까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형식 : 아니, 하루 아침에 어디로 갑니까 저는. (울컥한다.) 제가 뭐 통행에 방해가 되기를 했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기를 했어요. 구석에 조용히 자리잡고 그림도 못그려요?

공무원 : 아직 안하셨구나. 오늘 중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안그러면 저희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식은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는다.

종서 : 프랑스 말로 욱이라도 확 하지 그러냐. 어차피 몬알아듣잖아.

형식 : (한숨을 쉬며) 됐어요.

종서 : (장난스러운 말투로) 스파시바, 시벨롬.

천막 밖으로 사람이 서있다. 종서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는 형식.

형식 : 어서오세요. 아, 형. 손님왔어요. 이제 좀 가요.

종서 : 알았다. 알았어.

천막의 지붕이 점점 뜯기며 무너진다. 하늘 위로 흩뿌러지는 알록달록한 풍선들. 풍선들이 지나간 뒤로 보이는 용역의 험상궂은 얼굴. 형식과 눈이 마주친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다 날아가는 풍선들을 발견한 뼈에로.

삐에로 : 내 풍선!

풍선이 날리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삐에로. 형식과 종서 그리고 용역 세 사람은 일제히
삐에로를 바라본다.(F.O)

형식 : (프랑스어로)나 이제 어디로 가지.

S#7 공원/오후

(F.I)공원에 캔버스 스탠드를 들고 서 있는 형식. 형식의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른다.

학생 : 저 혹시.. 당근?

형식 : 아 네.

학생 : 이거구나.

형식 : 여기요. 이거 얼마 안쓴거예요.

학생 : (머뭇거리며) 아.. 네.

형식과 학생 사이에서 잠깐의 침묵이 감돈다.

학생 : 저 혹시, 제가 학생이라 그러는데 3천원만 내고 안될까요?

형식 : 아까 채팅할땐 쿨거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생 : 제가 학생이라..

형식 : (한숨을 쉰다.) 가져가세요.

끝.